

News

ECB, 금리 동결...팬데믹 채권 매입규모 유지

연합뉴스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역시 각각 현행 -0.50%와 0.25%로 유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한 수준에 수렴할 때까지 금리를 현행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적어도 내년 6월 말까지 PEPP를 통한 순자산 매입

7월 시중은행 대출 연체율 0.36%...전월대비 0.03%p ↑

데일리안

금감원, 7월 한달 간 국내 시중은행에서 30일 이상 연체된 원리금 비율은 한달 전보다 0.03%p 상승한 0.36%로 집계...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1%p 개선된 수준
7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소폭 증가(2000억원)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7000억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2조원 가량 급감

금융당국 "빅테크-금융사 공정한 데이터 거래원칙 마련"

아시아경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선)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특히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겠다...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 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원칙과 규율 방식도 논의"

"자금 비축"...5대 은행, 코로나 이후 요구불예금 45조 늘었다

데일리안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581조3832억원으로 집계...지난 3월(536조6313억원) 대비 44조7519억원(8.3%) 증가한 규모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성 자산이 늘고 있다...신용대출을 받은 자금을 요구불예금에 쌓아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효자일줄 알았는데...돌변한 변액보험에 등골 휘는 생보사

데일리안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24개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은 총 2조8723억원으로 1년 전(2조1384억원)보다 34.3%(7339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0%대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서 보험사의 투자 효율은 악화가 불가피...준비금은 약정대로 쌓아야 하다 보니, 보험사는 부담

실손보험 가입자 10명중 9명, 1년 간 보험 활용 無

메디컬투데이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업계의 실적급감의 주범이 된 가운데 가입자 10명 중 9명은 1년에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보험료에 차등을 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
보험연구원,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이 무청구자, 연간 100만원 이상 청구자 2% 미만 수준 불과...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에 취약"

거래소·예탁원, 14일부터 거래수수료 한시면제

연합뉴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
거래소는 청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증권회사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요동치는 테슬라에 떨고있는 ELS 투자자

서울경제

증권가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는 올해 이후 총 약 539억8,200만원 규모로 발행...'테슬라 ELS' 올 발행 1,000배 ↑
최근 주가 급락 이후 부정적인 전망이 늘면서 자칫 테슬라 주가가 손실 가능 구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위기감이 커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